

가설적 갈등상황에 대한 집단토의가 유아의 분배정의 추론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oral Dilemma Discussion
on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김 미 해*
Kim, Mee Hae
옥 경 희**
Ok, Kyung Hee

ABSTRACT

A major concern in the area of moral education is to find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capable of supporting maturity of moral reasoning in young childre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stributive dilemma discussion on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The subjects were fifty 5-year-olds selected from a kindergarten in the city of Kumi. 26 children participated in a 10 week discussion intervention; another 24 children constituted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procedure consisted of 3 parts; a pre-test to determine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moral discussions on dilemma situations based on 10 stori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a post-test for both groups. The moral discussions were audio-taped.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used more varied and elaborate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as the discussions proceeded. Moral discussions facilitated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I. 서론

전인적 아동발달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지적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서서히 도덕성 영역에 대한 필요성이 관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정

준, 1992; 이경우, 1995).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질중심과 개인주의 가치의 우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상 위기

* 구미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성 발달의 기본적 특성을 형성하고 후속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아기의 발달 단계적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유아의 도덕적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은 초자아와 관련된 양심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방법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이다. 두 번째는 모방과 동일시 그리고 처벌과 보상을 포함한 훈육의 중요성이 도덕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고 주장하는 사회 학습적 입장이다. 도덕성 발달은 인지구조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인지발달적 입장이 그 세 번째에 해당한다(이 경우, 1995).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는 각 이론들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본다면 정신분석학적 접근이나 사회 학습적 접근에 비해 인지발달적 접근방법이 더 유용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1977; Gelfand 등, 1975; Rushton, 1975).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초자아를 다루어야 하는 정신분석학적 방법이나 유아의 환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는 사회 학습적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도덕발달 형성의 주체인 유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발달을 꾀할 수 있는 인지론적 방법이 도덕성 발달에서 그 우월성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발달적 입장에서는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이 도덕성의 핵심을 형성하며,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의 수준이 행위의 도덕적 본질을 평가하는 절대적 요소 중의 하나이고, 추론의 진보가 도덕적 발달을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지발달적 접근에서는 도덕적 추론의 발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갈등상황에 대한 토론의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다. 갈등이란 발달을 자극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한다는 가정 하에서 갈등상황을 만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추론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성이란 자동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고, 다른 관점의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덕적 추론에 이르게되면서 발달한다는 것이다(Damon & Killen, 1982; Damon & Phelps, 1989; Jensen & Ryttring 1972; Krogh & Lamme, 1985).

갈등을 직접 경험하여 도덕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설적 갈등상황을 설정한 후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는 Kohlberg의 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나 Blatt(1975)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덕교육 현장에 적용되었다. Blatt는 아동들이 자신의 도덕적 추론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추론 수준을 접하게 되면서 도덕적 추론이 향상한다고 가정하고,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그 방안이 왜 정당한가에 대한 이유들을 토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는 도덕적 진보는 현재 추론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추론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남을 증명하였고, 이를 Blatt효과(the Blatt Effect)라고 부른다.

Berndt 등(1983-1984)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집단 토론의 특성과 이러한 토론이 이타주의와 정직한 행동에 대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설적 이야기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아동의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토의과정 중의 몇몇 요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즉 토론과정에 참여한 동료의 의견을 듣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질서나 조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은 동료간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사회적·인지적 갈등도 도덕성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가정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시해주었다. 사회 인지적 갈등이라는 구인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데, Sullivan이 도입하여 Youniss(1980)가 정교화시킨 이 관점에서는 동료협력에서 갈등보다는 협동, 합의, 친밀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한 동료들간 생각의 공동구성(coconstruction)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구성적 국면의 중요성은 Damon과 Phelps(1989)의 연구에서도 입증된바 있다.

또한 각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DeVries, Reese-Learned & Morgan(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 지시적인 프로그램이나 절충적인 프로그램에서보다 구성주의 프로그램의 아동들이 서로 더 협력적이고 갈등해결을 위해 더 많은 협상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보다 구성적으로 구조화시킴으로써 유아들이 자신의 세계에 대해 더 세련된 능력과 이해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들의 도덕적 이해를 길러주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추론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구성적인 사회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가설적 갈등 상황에 대한 토의가 아동의 도덕적 추론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하는 데에는 사회인지적 갈등뿐 아니라 구성적인 상호작용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나 전략, 그리고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초점을 두는 동등하고 협동적인 토의 과정에서 아동은 보다 고차원적인 추론을 하게 되고 이로써 사회적·인지적 능력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도덕적 발달을 부추긴다고 하겠

다.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영역 중 하나는 분배정의이다.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직면하는 갈등 중 분배와 관련된 것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분배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분배를 하지만 이것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사회적 기본논리가 분배정의이다. 이 분배정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야 하는 방법에 관해 규정짓는 도덕판단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Turiel, 1983) 아동의 도덕성에 핵심이 된다. 분배정의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Damon(1977)의 단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김미혜, 1992; Enright & Lapsley, 1981; Enright & Sutterfield, 1980)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분배정의 추론의 발달단계가 수정되거나 조절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미혜, 1996; 옥경희, 김미혜, 1998; Enright 등, 1984; McGillicuddy-De Lisi, 1994; Sigelman & Waitzman, 1991). 따라서 보다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분배정의의 개념발달을 통해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분배정의에 관한 가설적 이야기를 듣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분배정의의 개념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토의과정의 효과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분배정의가 토의과정을 통하여 발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김정준, 1992). 김정준(1992)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도덕적 상황에 관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도덕성 발달에 나타난 효과성을 측정하였는데, 분배정의는 도덕성 발달의 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의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도덕적 상황을 이용하여 포괄적인 토의과

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도 도덕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배정의의 발달을 이룩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도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인지에 대한 최근 연구의 추세는 사회적 개념 또는 영역에 따라 특수한 해석을 지향하는 영역 특수적(domain specific)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사회인지는 비사회적 인지 구조와는 다른 것으로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구별된 영역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Turiel, 1983). 이 관점에서는 사회인지의 발달적 변화를 단계 모델로 기술하기는 하나, 전반적인 유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적 지식영역 내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기술한다. 아동이 다른 대상이나 사건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각기 다른 개념이 형성되므로 결과적으로 아동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구성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경험한 유형의 사건들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토의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야기들과 토의 전·후의 추론의 변화를 측정하는 이야기가 각기 다른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매 토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사고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분배정의의 개념은 김미해(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수의 아동에게서서기는 하나 일회의 토론에서도 추론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배정의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 토론하게 함으로써 매 토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개념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토의과정에 대한 일관성 있고 집중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도덕성 개념에서의 성차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에서는 감지되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예; 김미해,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도덕성 발달의 한 영역을

구성하는 분배정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된 다양한 가설적 상황에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인지발달적 도덕교육의 접근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유아들에게 여러 유형의 분배정의 갈등을 소개하고 동료들과의 토의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찾아내는 경험에 참여토록 한 후,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유아 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도 아울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토의가 유아의 분배정의의 추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토의집단과 비토의집단간 분배정의의 개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토의집단과 비토의집단은 토의 전·후에 분배정의의 개념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3. 토의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분배정의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유아의 분배정의의 개념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1. 분배정의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유아의 분배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2. 분배정의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유아의 분배정의의 개념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한 사립유치원의 5세반 2학급이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의 일시적인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교사의 특성 및 각 학급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치원 원장으로 하여금 학급의 분위기가 가장 민주적인 2학급을 추천하게 하였다. 그 중 한 학급을 통제 집단으로, 다른 한 학급을 토의과정에 참여하는 실험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연구초기에는 실험집단에 28명, 통제집단에 30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나, 연구 도중 8명이 이사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실험집단 26명 (남아 10명, 여아 16명), 통제집단 24명 (남아 12명, 여아 12명)으로 총 50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도구

1) 분배과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배정의에 대한 추론을 조사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도록 요구하고, 분배를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묻고, 그 다음 그러한 분배행위에 대해 느끼는 공평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김미해 (1992)와 McGillicuddy-De Lisi (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수정하여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번 돈 9,000원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아동', '키 큰 아동', '가난한 아동'으로 구성된 한 조에 소속된 아동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특성을 지닌 아동에게 각각 얼마씩의 돈을 줄 것인지 액수를 묻는다.

연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단성원들의 개인적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낸 보조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르는 아이와 친한 친구의 경우 집단을 구성한 세 아이중 한 아이는 다른 두 아이보다 키가 더 큰 것으로 그려졌다. 나머지 두 아이의 키에는 차이가 없으나 한 아이는 가난함을 나타내는 옷차림을 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형제일 경우에는 형제 순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키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을 이용하였다. 조원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제시할 경우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동성의 그림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제를 돕기 위해서 가정한 9000원에 해당하는 가짜 돈 1000원짜리 9장을 연구대상자에게 나누어주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각 조원들의 그림 앞에 놓아줄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분배한 돈의 액수를 기록하였다.

연구대상자가 각 조원 앞에 자원을 분배하고 돈의 액수를 기입한 다음 자원분배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아동들의 응답은 다섯 개의 범주 중 하나로 부호화 시켰는데 사용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설명하지 못함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2) 동등성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할 경우), (3) 형평성 (자원을 모으는데 기여한 노력을 근거로 제시할 경우), (4) 자비심 (돈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 설명할 경우), (5) 비관련적 이유 (나이나 키 등과 같이 관련 없는 이유를 제시할 경우). 위의 다섯 항목 중 부적절한 이유를 근거로 들었을 경우에만 아이들의 반응을 그대로 반응지에 적었고 나머지는 점수로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실험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다섯 가지 분배근거의 차이점을 설명한 후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들의 대답을 읽은 후 분배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10개의 답안지를 해석한 두 사람의 의견일치도는 93 %로 나타났으며 차이를 보인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2) 공정성평가 과제

분배과제에 대한 면접이 끝나면 각 아동들은 4가지 범주를 적용하였을 경우 즉 '동등성', '형평성', '자비심', '기타 (키, 나이와 같은 외현적인 이유)', 각각에 대한 공평성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기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아동에게 우선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에게 5000원을 주고 나머지 2명에게 각각 2000원을 준다는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러한 자원분배 방법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매우 공평하다"에서 1점 "매우 불공평하다" 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가 공정성평가 과제 수행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길이가 다른 4개의 막대그래프 그림을 제시하였다. 가장 긴 막대가 '가장 공평한 것'이고 가장 짧은 막대가 '가장 불공평한 것' 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공평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막대 그래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아동에게 면접자가 돈을 전부 가지는 방법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모두 가장 불공평하다고 답하면서 가장 짧은 막대를 지적하였다.

3) 가설적 갈등상황

분배정의 개념에 관한 사전 및 사후검사를

위해 사용된 도구는 김미혜(1992)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새로이 구성된 이야기 딜레마를 사용하였다. 이야기 구성에서 변화된 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미혜의 연구에서는 팔찌를 만들어서 얻은 사탕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번 돈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개작하였다. 그 이유는 김미혜의 연구에서 보상으로 사용된 사탕이 음식에 대한 체면치레가 많은 우리 문화권(최재석, 1989)에서는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이 지적되었고, 또한 동등한 분할이 어려운 10개의 사탕이 '동등성 원리'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김미혜의 연구에서는 4명의 유아가 분배에 참여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특성이 다소 약한 '잘하는 아동'을 제외하고, 요구를 가진 아동도 무조건적인 양보반응을 유발하는 '나이 어린 아동'에서 '가난한 아동'으로 교체함으로써 3명의 유아, 즉 '가장 일을 많이 한 아동', '키가 큰 아동', '가난한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가설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유아들의 분배정의의 개념을 조사한 연구들(Damon, 1977; Enright, Franklin & Manheim, 1980; Peterson 등, 1975; Sigelman & Waitzman, 1991; McGillicuddy-De Lis 등, 1994)과 분배정의의 개념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할수용능력에 관한 연구(Damon, 1977; 한성희, 1986)를 기초로 분배상황을 다루는 이야기 8개와 역할수용에 관한 2개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극화하고, 융판용 그림자료를 제작하여 보조도구로 사용하였다. 10주 동안 아동들에게 제시된 갈등상황은 <표 1>에 보다 자세히 나타나있다.

<표 1> 각 주에 사용한 가설적 갈등상황 내용

주	주제	갈등상황 내용
1주	분배상황	체육대회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간식으로 제공된 피자를 나누는 상황
2주	분배상황	그림을 그려서 게시판을 꾸미기 위해 도화지를 나누는 상황
3주	역할수용	나무타기-나무타기를 하지 않기로 아버지와 약속한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를 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4주	분배상황	교실청소 후 받은 공책을 나누는 상황
5주	분배상황	쓰레기 줍기를 한 후 보상으로 받은 공책을 분배하는 상황
6주	분배상황	여름방학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자선금 분배하는 상황
7주	분배상황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을 사기 위해 투표하는 상황
8주	역할수용	강아지 이야기-강아지를 잃어버린 친구의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사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9주	분배상황	형제들이 신문배달을 하여 번 용돈을 나누는 상황
10주	분배상황	산타할아버지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는 상황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97년 9월에 시작하여 우선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10주 동안 주 1회 30분에서 40분씩 전체 유아들이 모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이용해 가설적 갈등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전체 유아들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이용한 이유는 소집단 토의가 제시된 문제 이외의 개인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Berndt, 1983-1984; Damon & Phelps, 1989), 한 유아가 주도적으로 토의를 이끄는 경우(김미해, 1992)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dwards의 생각하기 게임(김수영 등, 1995)의 방식을 이용하여 각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훈련시킨 다음 토의를 주관하게 하였다. 토의의 전 과정은 녹음되어 즉시 전사되었다.

10주간의 토의과정을 마친 후,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기간은 총 14주간이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아동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15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 자료분석

사전 및 사후검사에서 실시한 분배정의의 추론면접은 김미해(1996)의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는데, 이때 평정자간의 의견 일치도는 93%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배대상에게 나뉘어진 분배액수와 공평성 점수와 함께 사전·사후검사간의 차이 및 통제·실험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때 사용된 통계적 분석방법은 t검증, χ^2 검증, MANOVA 등이다. 그리고 토의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반응은 질적분석(신옥순역, 1991)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제기된 문제의 순서에 따라 분석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성차에 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어떠한 통계적 분석에서도 분배정의의 추론에서 의미 있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토의 전개 양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석결과에서 남·녀의 자료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1. 분배정의 추론에 미치는 토의의 효과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이 보인 집단별 분배 논리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배 논리는 통제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실험집단에서는 자신의 분배논리를 정당화시키지 못하거나 동등성 원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통제집단에서는 형평성의 원리를 주로 사용하고 실험집단 아동들이 한번도 적용하지 않은 자비심의 원리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사용한 분배논리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 두 검사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후검사에서는 자신의 분배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동등성 원리에 의존하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형평성 원리나 자비심 원리의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각 등장인물들에게 분배한 자원의 액수는 사전 검사·사후검사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의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토의에 참여하기 전보다 키가 큰 유아에게 자원을 덜 분배하고, 가난한 유아에게 보다 많이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평성 평정점수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검사·사후검사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다. 단 실험집단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각각 측정된 공평성 점수는 형평성에 대한 점수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토의를 실시하기 전에는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에서 분배를 설명하는 논리에서 더 발달된 결과를 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실험집단에서는 사전검사의 결과와 비교할 때 분배논리,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대한 분배액수, 그리고 공평성 평정점수에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도덕적 상황에 관한 집단토의가 유아의 분배추론발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토의전개 양상

분배상황에 관한 집단토의가 유아의 분배추론 발달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표 2> 집단에 따른 분배논리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빈도 및 백분율과 차이 검증 결과

	분배논리	실험집단 (n = 28)	통제집단 (n = 30)	차이 검증
사전검사	설명 못함	12(42.86)	5(16.67)	$\chi^2=14.20^{**}$
	동등성	9(32.14)	5(16.67)	
	형평성	2(7.14)	11(36.67)	
	자비심	0(0.00)	4(13.33)	
	기타	5(17.86)	5(16.67)	
사후검사	분배논리	실험집단 (n = 26)	통제집단 (n = 24)	차이 검증
	설명 못함	5(19.23)	5(20.83)	$\chi^2 = 1.41$
	동등성	1(3.85)	3(12.50)	
	형평성	6(23.08)	6(25.00)	
	자비심	10(38.46)	4(16.67)	
기타	4(15.38)	6(25.00)		
차이 검증	$\chi^2 = 21.35^{**}$		$\chi^2 = 1.41$	

** p<.01

<표 3> 집단에 따른 분배액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차이 검증

	분배액수	실험	통제	차이 검증
사전검사	기여도 큰 유아	3.36(.62)	3.37(.81)	t = -.05
	키 큰 유아	2.86(.45)	2.73(.64)	t = .85
	가난한 유아	2.78(.89)	2.90(.89)	t = -.62
사후검사	기여도 큰 유아	3.00(.94)	3.29(.75)	t = -1.22
	키 큰 유아	2.38(.70)	2.62(.58)	t = -1.33
	가난한 유아	3.61(1.02)	3.13(.68)	t = 2.01 (p = .051)
차이 검증	기여도 큰 유아	t = 1.66	t = .35	
	키 큰 유아	t = 2.98**	t = .65	
	가난한 유아	t = -3.95**	t = -1.03	

** p<.01

<표 4> 집단에 따른 공평성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차이 검증

	공평성 점수	실험	통제	차이 검증
사전검사	동등	3.11(.92)	3.37(.96)	t = -1.05
	형평	3.04(1.11)	2.60(.86)	t = 1.69
	자비심	2.43(1.10)	2.53(1.20)	t = -.35
	기타	2.29(1.18)	1.80(.88)	t = 1.81
사후검사	동등	2.73(1.08)	3.08(.78)	t = -1.33
	형평	2.38(.90)	2.33(1.09)	t = .18
	자비심	2.96(1.11)	2.58(1.10)	t = 1.21
	기타	1.92(1.16)	2.00(1.25)	t = -.22
차이 검증	동등	t = 1.38	t = 1.17	
	형평	t = 2.37**	t = 1.01	
	자비심	t = -1.17	t = .16	
	기타	t = 1.14	t = .70	

** p<.01

<표 5>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분배추론의 유형별 빈도 및 백분율과 각 유형별 평정점수

검사	성별 (N)	분배추론의 유형별 빈도 / (백분율)					유형별 평정점수 / (표준편차)			
		설명 못함	동등성	형평성	자비심	기타	동등성	형평성	자비심	기타
사전 검사	남 (13)	9 (32.14)	2 (7.14)	1 (3.57)	0 (0.00)	1 (3.57)	2.87 (0.86)	3.33 (0.78)	2.05 (0.79)	2.30 (1.17)
	여 (15)	3 (10.71)	7 (25.00)	1 (3.57)	0 (0.00)	4 (14.29)	3.35 (0.75)	2.75 (0.99)	2.81 (0.90)	2.28 (1.06)
	계 (28)	12 (42.86)	9 (32.14)	2 (7.14)	0 (0.00)	5 (17.86)	3.11 (0.90)	3.04 (0.93)	2.43 (0.93)	2.29 (1.11)
사후 검사	남 (10)	3 (30.00)	0 (0.00)	4 (40.00)	3 (30.00)	0 (0.00)	2.40 (1.08)	2.70 (1.06)	3.10 (0.99)	1.80 (1.14)
	여 (16)	2 (12.50)	1 (6.30)	2 (12.50)	7 (43.80)	4 (25.00)	2.94 (0.45)	2.19 (0.75)	2.88 (1.20)	2.00 (1.14)
	계 (26)	5 (19.20)	1 (3.80)	6 (23.10)	10 (38.50)	4 (15.40)	2.73 (1.08)	2.38 (0.90)	2.96 (1.11)	1.92 (1.16)

토의전개 과정에서의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전에 실시된 분배정의의 결과부터 살펴봄으로써 토의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의를 실시하는 실험집단에게서 나타난 분배추론의 유형별 빈도 및 백분율과 각 유형별 평정점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자신의 분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대지 못하는 수가 많은데 비해, 여아들은 동등성의 원리를 들어 자신의 분배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각 유형별 평정점수를 보면 남아는 형평성에 기초한 분배를, 여아는 동등성에 기초한 분배를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하였고, 여아는 키가 큰 아이는 많이 갖는 것을 가장 불공평하다고 평정하였는데 비해 남아들은 가난한 아이가 많이 갖는 것을 가장 불공평하다고 평정하였다.

토의과정의 처음 두 주 동안은 사전면접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즉 자신의 분배논리를 설명하지 못하거나(예; 그냥요), 키가 큰 아이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만들어서(예; 애는 집에 동생이 있으니까요... 두 개 가져야 해요) 자신의 분배를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사전검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동등성의 원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제3주에는 "나무타기"라는 역할수용에 관한 이야기를 토의하였다. 이 이야기에서는 권위적인 존재인 아버지와의 약속이 갈등의 주요인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유아들이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였다. 그 후 4-5주째 토의과정에서부터 약간 다른 양상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전에 보였던 반응들 외에도 형평성의 논리와 자비심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가 언급되면서 반응이 보다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아들에게서 언급되는 자

비십의 원리나 동등성의 원리가 남아들에게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키와 같은 외현적인 특성과 형평의 원리를 분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남아들의 반응은 사전검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지만, 여아들의 반응이 보다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6주째 사용된 여름방학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라며 주신 자선금을 나누는 상황에서는 자비심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에서는 남아들도 그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자비심의 원리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또한 7주 투표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동등성의 원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초기 토의과정 이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 외현적인 특성(키, 나이)을 들어 분배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비심의 원리도 빈번하게 언급되었는데 역시 자비심의 원리는 여아에게서, 형평성이나 외현적인 특성은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8주에는 Selman의 '강아지 이야기'(Damon, 1977, 재인용)를 사용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각 이야기 주인공들의 감정과 특성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 이야기에서는 친구들간의 갈등이 주요인 이어서인지 권위적인 존재인 성인과의 갈등을 다룬 '나무타기'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

부분 다른 사람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9주째의 이야기에서는 형제간의 분배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린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일을 많이 한 것이나 아이디어를 낸 것과 같은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계절에 맞추어 마지막 주에 실시된 이야기는 산타할아버지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주는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로 인해 매우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이 이야기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아동(형평성)과 가난한 아동에 대한 배려(자비심)가 가장 많았는데, 남아들은 형평성과 자비심을 함께 언급하는데 비해, 여아들은 자비심의 원리에 보다 많이 의존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유아들(75%)이 자신의 분배를 정당화시키지 못하거나 엄격한 동등성의 원리를 시작하였으나, 토의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자신의 분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보다 다양한 분배논리들이 사용되었다. 즉 토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가설적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하는 능력이 점차 세련되고 정교화되었으며,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이러한 특성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분배정의에 관한 토의 전개양상과 이 도덕적 토의가 유아의 분배정의 추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그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집단토의 과정에 노출된 실험집단의 경우 분배논리, 분배액수 그리고 공평성측정에서 형평

성의 경우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토론의 전개과정에서도 보다 다양한 분배논리를 사용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가설적 갈등상황이 유아의 분배정의 추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분배정의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토의에 참여하기 이

전에는 자신의 분배를 정당화시키지 못하거나 엄격한 동등성의 원리를 사용하던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토의가 3주정도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분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점차 사라지고, 보다 다양한 분배논리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발달은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김정준, 1992; Damon & Killen, 1982; Damon & Phelps, 1989; Jensen & Ryttring 1972; Krogh & Lamme, 1985).

더 자세히 집단토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와 비교하여 유아들은 점차 다양한 분배원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분배를 정당화시켰으며, '키가 큰 유아'에게 분배한 액수는 의의 있게 줄어들었고, '가난한 유아'에게는 더 많이 분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공정성 평정척도에서도 나타났는데 동등성을 더 공정하다고 대답한 사전검사와는 달리 자비심의 원리를 가장 공평한 것으로 평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분배논리에서의 변화가 Damon(1977)의 자연스러운 단계변화로 보기에는 그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도덕적 토의를 통해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하는 능력이 점차 세련되고 정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배논리에서의 변화는 이야기 속의 각 주인공에게 할당된 분배액수나 공정성 평정결과에서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표 2>, <표 3> 참조), 이는 실험집단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다. 즉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자비심의 원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가난한 유아'에게 가장 많이 분배하였으며, 공정성 평정에서도 자비심의 원리를 가장 공평하다고 하였다. 반면 이 실험집단의 유아들도 토의에 참여하기 전에 실시한 사전검사에서 통제집단의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배논리와 분배액수, 공정성 평정점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분배

에 관한 가설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가 유아들로 하여금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그 분배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일치로까지 해석하기 어려우나, 도덕적 추론과 판단이 행위의 도덕적 본질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도덕적 추론의 발달이 도덕적 발달을 이끌어 간다고 보는 인지발달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분배정의추론 발달을 위해서 선택된 주제와 관련된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영역특수적 접근을 사용했을 때 보다 자세한 발달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설적 상황의 내용에 따라 유아들이 사용하는 추론의 다양성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을 해서 얻은 보상을 친구들에게 나누는 이야기(청소하기, 쓰레기 줍기)에서는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캠프에서 자선금을 나누는 이야기와 형제들간에 신문배달을 해서 모은 돈을 나누는 이야기에서는 매우 제한된 반응이 나타났다. 자선금 분배에서는 자비심의 원리가 형제들간의 분배에서는 '어린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선금을 나누는 상황에서는 돈이 필요한 아동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는 자비심의 원리를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결과 (Siegelman 등, 1991)와 일치하였다. 그런데 형제간의 분배상황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 유아들의 반응에서는 Damon(1977)이나 Enright 등(1984)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어떠한 다른 분배논리보다 '양보'가 우선적이었다. '어린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라는 반응은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미해(1992)의 연구에서도 거의 모든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던 점을 미루어 보아 우리 사회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형제간의 분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분배 정의가 발달할수록 상황적 단서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옥경희와 김미혜, 1998)를 지지한다.

아동의 인지적 능력의 발달적 경향이 보편성(universality)을 지닌다 하더라도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굴절현상을 살펴보는 민감성이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가설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위에서 제시된 형제간의 분배상황과 7주에서 사용한 투표권을 분배하는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구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Sigelman 등(1991)의 연구에서는 투표상황에서 동등성의 원리를 가장 많이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등성의 원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양성을 제외한 형평성이나 자비심과 함께 점차 사라져 가던 나이와 키와 같은 외현적인 특성을 분배의 근거로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초기 토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공평성 평정에서도 가장 불공평한 것으로 평정된 외현적 특성을 분배의 근거로 삼는 초보적인 추론의 유형이 유독 투표상황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에게는 투표상황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도덕적 토의가 유아의 분배정의의 추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차에 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분배논리, 분배액수 그리고 공평성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전·사후검사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은 본 연구대상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기에 보다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양

적인 통계분석 방법만으로 분배정의의 개념에서 성차의 유무를 단정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토의과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도덕성 개념에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에게 의하면 여자는 사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관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동등성 원리를 선호하는 반면 권력이나 정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남자들은 형평성 원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아들은 동등성의 원리를, 남아들은 형평성 원리를 가장 공평하다고 평정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Gilligan(McGillicuddy-De Lisi 등, 1994, 재인용)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더 자세한 연구결과가 있어야만 유아의 분배정의에서의 성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토의의 전 과정의 진행상황을 볼 때 상황적인 융통성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보였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지만 남아보다 여아의 언어적 반응이 더 정교한 것이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있겠다.

끝으로 분배추론의 발달적 경향을 동등성의 원리에서 보이는 특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토의과정에서 분배추론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남아의 경우 동등성의 원리에 의존하는 1-A 수준이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여아의 경우에도 사전검사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던 동등성의 원리가 토의과정에서는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우선 토의과정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균등하게 분배하기 어려운 보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사전검사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보상을 사용한 6주째의 '여름캠프 이야기'

에서 동등성 원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균등분배가 곤란한 4주, 10주의 이야기에서 동등성의 원리가 소수의 여아들에게서 언급되었으며, 사전검사와 동일한 이야기로 실시된 사후검사에서 '동등성 원리'가 급격히 감소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상의 특성으로 1-A 수준이 생략된 추론수준의 향상을 설명하기에는 일관성이 결여된다. Damon(1977)에 의하면 새로운 분배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어서 그 발달이 매우 느리다고 하였으므로, 단 몇 주만에 한 두 단계를 건너서 추론수준에서의 변화를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맥락적 관점에서의 해석인데 Sigelman 등(1991)과 옥경희와 김미혜(1998)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은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자신의 판단과 분배를 수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사전검사에서 남아·여아 모두 다양한 분배논리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매주 유사한 이야기로 토의를 하면서 보다 다양한 해결방식을 인식하게 되고 각 이야기 상황에 맞추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원인은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학급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배정의의 추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 지능, 언어적 유창성, 교사의 개인적 특성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한 추후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이 생각하기 게임의 방식을 적용한 집단토의였기 때문에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집단토의와 소집단 토의간의 효과를 비교해 보아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서 5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고려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혜(1992). 아동의 공평성, 우정개념 발달 및 분배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혜(1996). 맥락적 관점에서 본 아동의 분배정의 개념의 발달. 구미전문대학 논문집, 4, 311-323.
- 김수영, 김향자, 이현옥, 허선자 편역(1995). **유아의 사회성 발달**. 서울 : 학지사.
- 김정준(1992). 가설적 갈등상황의 토의가 유아의 도덕적 추론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배정의의 추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옥경희, 김미혜(1998). 사회적 관계에 따른 아동의 분배정의 추론의 발달. **이동학회지**, 19(1), 101-116.
- 신옥순역(1991). **교육학 연구의 새접근: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경우(1995). 가정의 기본 생활교육과 부모의 역할. 한국 유아교육학회(편), 도덕성 기초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5-42. 서울: 양서원.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한성희(1986).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수용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arison, D., Magzaman, S., & Filardo, E.

- (1986). Socio-cognitive conflict and cognitive growth in young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2, 236-245.
- Berndt, T. J., McCartner, K., Caparule, B. K., & Moore, A. M. (1983-1984). The effects of group discussion on children's moral decisions. *Social Cognition*, 2(4), 434-359.
- Blatt, M., & Kohlberg, L. (1975). The effects of classroom discussion upon children's level of moral judge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4, 129-161.
- Brody, G. (1977). Effects of multiple model variations and rationale provision on the moral judgements and explan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1117-1120.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Damon, W. (1979). Why study social-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22, 206-211.
- Damon, W., & Killen, M. (1982). Peer interac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children's moral reas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28(3), 347-367.
- Damon, W., & Phelps, E. (1989). Strategic use of peer learning in children's education.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135-157. New York : John Wiley & Sons.
- Devries, R., Reese-Learned, H., & Morgan, P. (1991). Sociomoral development in direct instruction, eclectic, and constructivist kindergartens : a study of children's enacted interpersonal 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4), 473-519.
- Enright, R D., & Sutterfield, S. (1980). An ecological validation of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1, 647-674.
- Enright, R D., Franklin, C., & Manheim, L. (1980).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 a standardized and objective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93-202.
- Enright, R D., Enright, W. F., & Lapsley, D. K. (1981). Distributive justice development and social class : a repl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26-832.
- Enright, R D., Bjerstedt, A., Enright, W. F., Levy, V. M. Jr., Lapsley, D. K., Buss, R. R., Harwell, M., & Zindler, M. (1984). Distributive justice development : cross-cultural, contextual, and longitudinal evaluations. *Child Development*, 55, 1737-1751.
- Gelfand, D. M., Cromer, D. P., Smith, C. C., & Page, B. C. (1975). Effects of instructional prompts and praise of children's donation rates. *Child Development*, 46, 980-983.
- Jensen, L., & Rytting, M. (1972). Effects of information and relatedness on children's belief in immanent justice. *Developmental Psychology*, 7, 93-97.
- Krogh, S. L., & Lamme, L. L. (1985). 'But what about sharing?' children's literature and moral development. *Young Children*, 40, 48-51.
- McGillicuddy-De Lisi, A. V., Watkins, C., & Vinchur, A. J. (1994). The effects of relationship on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5, 1694-1700.
- Miller, S., & Brownell, C. (1975). Peers, persuasion and Piaget : dyadic interaction between conservers and non-conservers. *Child Development*, 46, 992-997.
- Miller, S., & Brownell, C., & Zukier, H. (1977). Cognitive certainty in children : effects of concept, developmental level, and method of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 236-243.

- Perterson, C., Perterson, J., & McDonald, N. (1975). Factors affecting reward allocation by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942-947.
- Rushton, J. P. (1975). Generosity in children : immediate and long-term effects of modeling, preaching, and moral ju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59-466.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 Academic Press.
- Sigelman, C. K., & Waitzman, K. A. (1991).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ve justice orientation : contextual influences on children's resource allocation. *Child Development*, 62, 1236-1378.
- Turiel, E. (1983). Domains and categories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W. F. Overt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New York : Gardner Press.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